

농업·농촌의 희망 무엇이 있나?

‘농업·농촌저력’ 역사가 증언·그것이 곧 희망, 또 다른 희망은 금상첨화
‘희망’ 마음먹기 달려, 책임영농·생산적 결집·지원조직 확보 우선 실천

희망. 희망이란 무엇인가? 희망의 반대는 절망이다. 절망은 살아가야 할 목표가 없다는 말이다. 다시 거꾸로 뒤집어 보자. 뭔가 내일에 기대하고 바라는 작은 목표라도 있다면 바로 희망이 되는 셈이다.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에서 살아가야 할 목표는 있는가? 얼핏 보면 비관적이다. 농촌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껴안고 있는 공간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이 수입되니 농업을 지켜나갈 목표가 없다며 절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자. 대한민국이 절망한다 하더라도 농업·농촌은 절망하지 않는다. 질경이 같은 삶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온 농업·농촌의 저력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그 증언이 기본적인 희망이다. 그 위에 다른 희망이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되리라.

선진국, ‘공익적 기능’인식 확산

얼마 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를 돌아보았다. 앞서가는 사람들로 부터 배울 것을 찾아보자는 목적이었다. 유럽은 EU로 통합된 이후 모든 나라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각기 나름으로의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농업인구 6% 수준으로 농산물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만, 소농 중심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EU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경제력이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EU에 가입한 나라들은 경쟁력 있는 부문을 분담해 농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분야의 소농들은 자연스럽게 구조조

정 되고 대규모 전업농 중심의 농기계를 이용한 가족영농체제로 경영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나라별로 특징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럽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점은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이다.

농업의 가치가 단순한 먹거리 생산 기능이란 차이를 벗어나 환경보존 등의 다기능적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울러 농촌은 영농을 하는 농업인이 사는 단순한 장소가 아닌, 도시민에게 휴양지를 제공하고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터전으로, 은퇴한 도시인들이 돌아가 건강한 장수를 누리며 조용히 노년을 보내는 공간으로 자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농업인구는 3% 수준이지만 농촌에 사는 사람은 20%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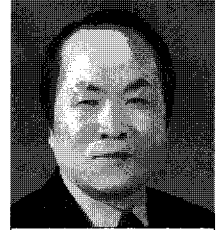
유럽의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어 새로운 가능성 있는 삶의 영역이나 공간으로 대접하고 있다. 그러기에 농업·농촌을 영위하는 주체인 농업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국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산간지 등 농업 생산성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곳일수록 자연경관(自然景觀)을 보존하는 의미에 더 가치를 두어 국가의 보조를 확대하거나, 일반 경작지라 할지라도 생산성 우선 보다는 환경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영위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면’이 중요, 희망 요소 점차 늘어

그럼 대한민국을 돌아보자.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어지고, 수

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이라고 한다. 진정으로 맞는 말인가? 한번 따져보자.



성 종 환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먼저, 농업인의 고령을 보자. 물론 도시보다는 고령인구가 많다. 그러나 농촌의 어르신들은 주위에 소일거리가 있다. 그러기에 도시에 사시는 어르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다.

힘은 들지만, 몸을 놀려 농사지은 고추며 마늘을 도시에 나가 있는 아들·딸이나 형제들에게 철 따라 보내 준다. 한 사람의 역할을 몇몇이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기에 육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사는 보람이 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노년을 보내는 대접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도시에 더 많다고도 할 수 있다. 어디가 희망인가?

농촌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어졌다고 한다. 그럼 도시에 아이 울음소리가 많은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우리나라 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평균 1.2명이다. 아이 낳지 않기로 아마 세계 1위이리라.

어느 장관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국가의 재난이라 표현하였다. 어쩔 수 없이 아이 울음소리는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 울음소리로 따져 농촌이 절망이라면 나라 전체가 절망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절망할 것은 아니



냉정히 생각하자. 대한민국이 절망한다
 하더라도 농업·농촌은 절망하지 않는다.
 질경이 같은 삶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온
 농업·농촌의 저력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그 증언이 기본적인 희망이다.
 그 위에 다른 희망이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되리라.



다.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도록 정책을 구사하면 된다. 튼튼한 젊은이가 많으니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자신 있는 영역이라 여긴다. 그러기에 희망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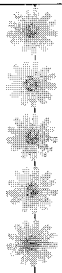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이다. 아울러 웰빙 식탁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은 농업의 분야별 전문화로 이어져 농업인의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기에 보통의 농업인들의 적응이 그리 쉬운 편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농사로도 연간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도 많다는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아닌가?

그러기에 이제 조금 더 크게 보자. 외형적인 문제로 농업·농촌을 절망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읽으면서 농업·농촌의 내면적 상황을 이야기 하자.

한마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앞으로 굴리고 있는 제반 사회현상은 농업·농촌에 대해 긍정적이다. 유럽에서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공감도 확산되고 있음이다.

국민들 가운데서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에 농촌에는 희망과 꿈이 있고 농업인에게는 용기가 솟아나는 그런 사회의 흐름들이 여기 저기 나타나고 있다.

도시주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절대 수입쌀은 사먹지 않겠다는 경우가 46%나 되었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다면 값이 비싸더라도 우리 쌀을 먹겠다는 주부들이



대부분이다.

농촌진흥청이 전통 테마마을사업으로 선도하기 시작한 농촌체험활동과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적절한 공간으로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원농업교육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언론을 중심으로 시작된 1사1촌(一社一村)운동이나 손바닥만한 주말농장 분양 현장도 찾아오는 도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국민인식의 변화 양태들이다.

의지가 중요, 목적 분명하면 희망

그래서 농업·농촌의 미래는 희망이다. 다만, 농업·농촌의 주체가 되는 농업인의 인식이 중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려는 제대로 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많은 것 가운데서 다음 세 가지 사항만이라도 우선해서 지켜보자

첫째, 농가 단위의 책임영농(責任營農)이다. 농업의 주체는 농업인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끌어가거나 보호하던 시대는 지났다. 농사만 지어 놓으면 어떻게든지 팔리던 시대도 지났다. 외국 농산물과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우선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대로 된 물건이 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든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다.

둘째, 전문 분야별 생산적 결집이다. 제대로

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적절한 생산은 기술과 남다른 아이디어가 생명이다. 그러나 혼자서는 어렵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 함께 생각하고 움직여야 힘이 생긴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인간다운 삶의 터전 공급이 농업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면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뭉쳐야 한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좋은 대안이다.

셋째, 농업인 지원조직(支援組織)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식·기술농업의 지역단위 본산인 농업기술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가운데 일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없애 버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다. 잘못할 때는 꾸짖더라도, 애로가 무엇인지 살피며 농업인이 바라는 대로 역할을 잘하도록 만드는 일은 농업인의 몫이다. “지혜로운 주인은 자신이 굶더라도 머슴은 배불리 먹인다”는 속담을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농업·농촌의 희망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였다. 요약하면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희망이다”. 남보다 한발 앞선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발전 지속이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의 농업이다. 아울러 삶의 터전으로 세계 어디서도 비길 곳이 없는 삼천리금수강산 대한민국의 농촌이다.

새롭게 열리는 지구촌(地球村)이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정으로 도전할 것인가? 그리하여 희망을 일구어 갈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예” 라는 답변이면, 희망이다. 결국,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세우는 것은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Y